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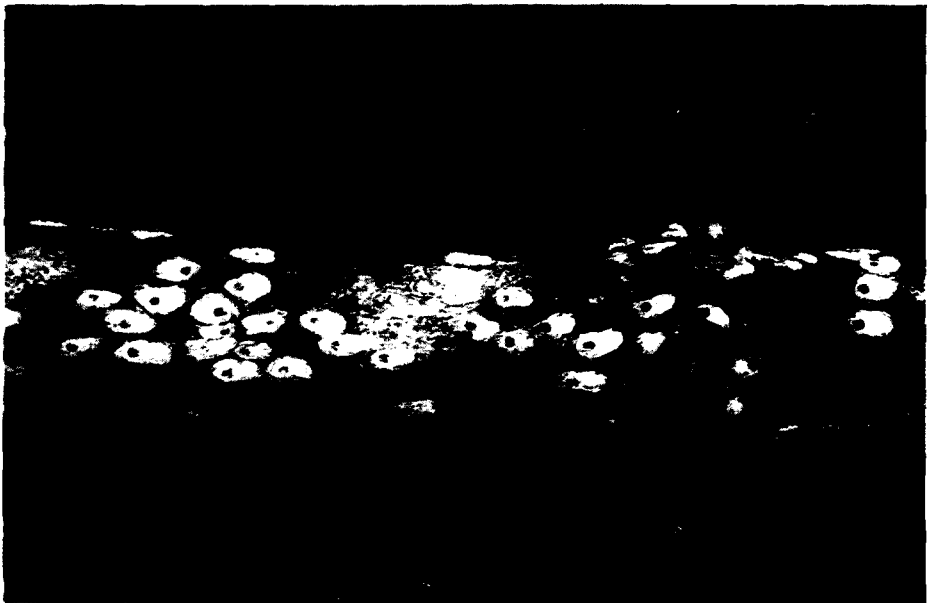
# 대목이식 때 발생하는 천공성해충(穿孔性害虫)

—소나무노랑점바구미—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이 해충은 수세가 쇠약한 나무의 줄기 및 가지에 기생하는 해충으로 대묘조립지 또는 미리 뿌리돌림을 하여 놓지 않은 나무를 이식한 대목에 많이 발생한다.

분포 : 한국, 일본  
가해수종 : 소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히말라야시다



소나무노랑점바구미  
피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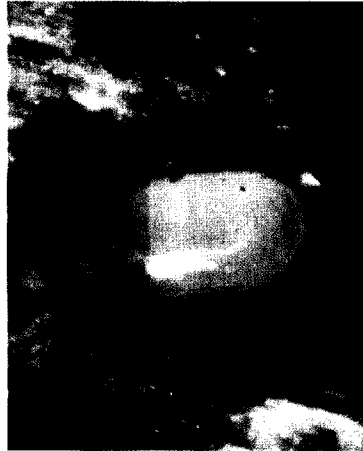
가해상태 : 쇠약한 나무의 줄기 및 가지의 수피밑 형성층부위를 불규칙하게 구멍을 뚫고 가해한다. 피해를 받은 나무의 잎은 색깔이 퇴색되고 점차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부터 고사하기 시작, 나무전체가 고사된다.

형태 : 성충의 몸길이는 7~10mm이고 몸은 적갈색이며 앞가슴 등쪽에 2개의 백색반점이 있다. 딱딱한 앞날개(鞘翅)에는 2줄의 백색횡대(橫帶)가 있고 알은 타원형이며 긴쪽의 길이가 0.5mm이고 유백색이다. 노숙유충의 몸길이는 15mm이고 색깔은 백색이며 머리는 갈색이다. 다리는 없고 몸전체가 배쪽으로 구부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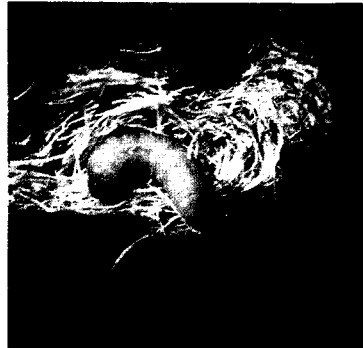
생태 : 1년에 1회 발생하며 성충으로 지피물 및 수피틈에서 월동한다. 월동한 성충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에 월동처에서 나와 수피가 얇은 줄기나 가지에 주둥이로 구멍을 뚫고 즙액을 빨아먹은 후에 그 구멍에 알을 1개씩 낳는다. 때로는 한곳에 2~3개의 알을 낳는 경우도 있다. 산란한 후에는 반드시 구멍 입구를 배설물(排泄物)로 막아 눈에 잘 띈다. 성충의 수명은 50일 내외이며 산란시기는 월동처에서 나와서부터 5월까지이며 산란 퇴성기는 4월중·하순이다. 난기는 10~15일이며 부화한 유충은 수피밑 형성층 부위에 구



성충



알



유충

멍을 뚫고 가해하므로 불규칙한 구멍이 남는다.

노숙한 유충은 식해공(植害孔) 선단부에 목초(木屑)로 타원형의 번데기집(蛹室)을 짓고 번데기가 된다. 우화한 성충은 수피에 직경 3mm정도의 원형의 구멍을 뚫고 밖으로 탈출한다.

성충우화 시기는 6월중순부터 7월말이며 우화최성기는 6월말이다. 우화한 신성충은 낮에는 신초나 가지에서 쉬고 있다가 밤이되면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때 신초 또는 1~3년생가지의 수피에서 수액을 흡즙한다. 신성충은 우화 당년에는 산란하지 않고 11월까지 수상에서 먹이만 먹다가 월동에 들어간다.

방제법 : 건전한 나무에는 기생하지 못하고 수세가 쇠약하거나 고사된 나무에서만 번식하므로 병해충 방제, 비배관리등으로 철저히 하며 수세가 약해지지 않도록 한다.

임내 고사목은 이 해충의 성충이 우화 하기전인 6월 이전에 벌채하여 나무 껍질을 벗겨 내부에서 살고있는 유충을 채집, 땅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봄에 이식한 나무는 이식 직후부터 메프제 1,000배액을 5월까지 수시 살포한다. ㉞